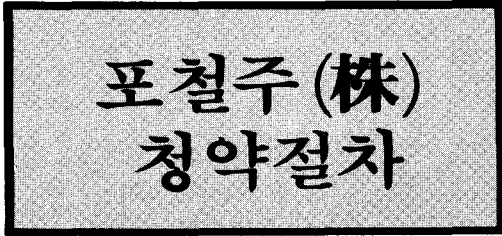


## □ 국민주시대가 열린다



은국민의 관심속에 시행되는 국민주보급이 본격화단계에 이르렀다. 포철주가 4월1일부터 10일까지 보급되며 곧이어 한전, 국민은, 통신공, 전매공 등 국가 기간산업업체나 공공성이 높아 국민적 기업의 성격이 큰 기업의 주식이 잇따라 일반 국민에게 매각될 예정에 있다.

이번에 발행되는 포철주에 대한 청약방법과 증시상장시기 및 청약자들에게 돌아가게 될 이익을 알아본다. 국민주청약예금에는 언제나 가입이 가능하며 청약자격은 예금가입후 10일이 지나야 된다. 포철주의 경우 4월10일에 청약이 끝나기 때문에 청약희망자들은 적어도 3월말까지는 청약예금가입이 되어있어야 한다.

청약예금장소로는 7개시중은행과 10개지방은행, 외환은행, 국민은행, 주택은행, 기업은행, 농협, 축협, 수협 등 24개 금융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다. 가입희망자는 관계기관에서 발행하는 청약자격확인서와 주민등록증, 도장을 가지고 해당 은행에가서 소정양식에 기재한 후 1만원 이상을 예치하면 된다. 농어민은 농협·축협·수협 단위조합에다 청약예금을 넣으면 된다. 이때 가입대상자격은 월급여가 60만원 이하인 근로자, 일급여 2만4천원 이하인자, 근로자, 농지 2ha이하 소유자, 젖소20마리 이하 양축가, 20t이하 어선소유자, 월소득 60만원 이하의 자영업자만이 가입할 수 있다.

일반 근로자가 가입할 경우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사업주로부터 재형저축가입대상자, 세대주라는 확인을 받으면 된다. 농어민인 경우에는 이·동장이나 어촌계장, 축산조합장 등으로부터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가입대상자이며 세대주라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청약희망자는 청약서식에 기재할 때에 매입희망주식에 해당하는 청약증거금을 국민주청약예금 계좌에 입금

시키면 되는데 청약증거금의 액수는 국민주매입 방법에 따라 약간 다르다. 직접매입자는 청약자의 금액에 100%, 국민주신탁에 가입한 희망자는 200%를 내면된다.

이번에 발행되는 포철주는 주당 1만5천원, 1만5백원(30%할인가격)의 2가지 가격으로 매각되며 할인가격으로 매입하려면 국민주청약시 청약서류에 그 뜻을 기재하면 된다. 일단 할인을 받고 매입한 주는 3년간 포철이 지정한 예탁기관에 예탁을 하여야 하며 매각은 일체 불허이다.

국민주 신탁은 국민주를 50%정도, 국공채와 회사채 등을 50%정도 각각 편입 운영하게 되어 소요자금의 2배를 한꺼번에 취급 금융기관에 내야하는 부담이 있다. 월소득 40만원 이하의 저소득 층에게는 취급금융기관에서 가입에 필요한 자금의 50%를 연8%의 저리로 융자를 받을 수도 있다.

가장 관심이 많은 청약 한도는 1인당 200株로 확정되어 20주 이하만 가능하다. 현재 국민주청약예금에 가입한 사람은 2백30만명선으로 3월31일까지는 1백만명에 달 할 것으로 추계된다. 실제 포철이 매각할 주식은 3천1백만주 선이므로 1인당 배정주식은 약 7주안팎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포철은 금년 6월쯤에 상장될 예정에 있어 거래는 그때부터 시작될 것 같다. 증권업계에서도 포철주 시세는 2만3천~3만원선이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배정주식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일반 증권처럼 값이 올라도 거액을 번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다. 어쨌든 국민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하며 국민주야말로 저축수단으로써 국민들이 이해하여 나가야 하리라고 본다. **양지**